

# 민속학 연구의 자료공간 확충

「韓國口傳說話」 '북한편' 완결한 任哲宰翁



1930년대 북한지역의  
민간설화를 채록한  
「한국구전설화」 '북한편'이  
원로민속학자 임석재옹에 의해  
최근 완결됐다. 우리  
민속학연구의 자료공간을  
확충시킨 것으로 평가되는  
임옹의 이 작업은 제보자의  
구술을 그대로 문자화했다는  
점에서 구전설화연구의  
자료적 가치가 돋보인다.

임석재옹.

원로민속학자 任哲宰翁(86)이 최근「韓國口傳說話」 '북한편'(전4권, 평민사)을 완결했다.

1987년 2월 제1권으로 상재한 '평안북도편 ①'을 필두로, 이듬해 6월과 12월 각각 '평안북도편 ②'(제2권)와 '평안북도 ③· 평안남도· 황해도편'(제3권)을 잇달아 펴낸데 이어 이달 초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편'(제4권)을 마저 선보임으로써 북한지역에서 구비전승되던 민간설화의 일대집성을 이루어낸 것.

이같은 북한설화의 체계적 집대성은 특히, 이제껏 남한은 물론 북한학계에서조차 이루지 못했던 거의 초유의 일이라는 점에서 우리 민속학 연구의 자료공간을 확충시킨 작업으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게다가, 여기 실린 설화의 대부분이 매스컴의 영향으로부터

전적으로 차단된, 순수한 구전설화의 진면목을 고스란히 간직한 1930년대의 구술을 채록한 것이라는 점도 그 의의가 높게 평가된다.

## 수록자료의 방대함과 회귀성 돋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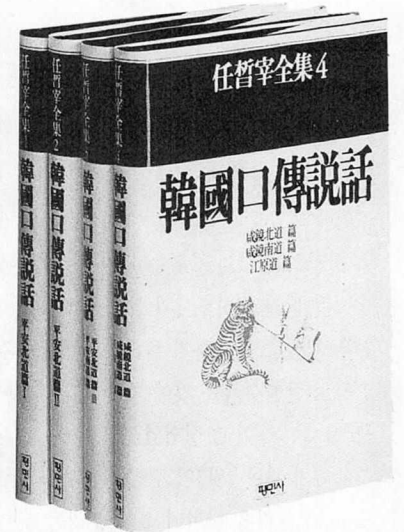
宋錫夏, 孫晉泰 등과 함께 우리 민속학계의 제1세대로 꼽히는 임옹이 설화에 관심을 갖고 자료수집을 시작한 것은 京城帝大 법문학부 철학과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던 1927년경. 그러나 보다 본격적으로 설화채록에 나선 것은 1931년, 그가 10년간 재직하게 되는, 평북 宣川의 信聖중학에 부임하면서부터다. 이후 50년이 넘도록 임옹이 채록하여 모아둔 설화는 가짓수 만도 만개에 넘는 방대한 분량인데, 설화수집에 대한 임옹의 '욕심'은 지난해 따님 任敦姬교수(동국대· 문화인류학)와 함께 떠난 전북

익산의 현장답사에서 촌로들의 이야기를 듣느라 사흘밤을 꼬박 새울 만큼 아직 식지 않고 있다.

“이만한 분량의 설화를 수집하게 된 데는 그러나 제자들의 도움이 무엇보다도 컸습니다. 특히, 이번에 완결한 '북한편'의 경우는 더하죠. 개중에는 내가 직접 채록한 설화도 있지만, 60년전 14~5세 소년이었던 신성중학 제자들에게 방학숙제로 내줘 각기 제 고향의 설화를 모아오게 한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수집된 자료들은 6·25 피난 당시 땅에 묻어 보관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85년 평민사측과 “연이 닿아” 이태 뒤부터 하나둘 책으로 묶여져 나오게 됐다. 이번에 완결된 '북한편'은 말하자면 그런 임옹의 작업의 중간결산인 셈인데, 수록자료의 방대함과 회귀성을 학자들은 높이 친다. 임옹의 제자이기도 한 崔來沃교수(한양대)는 “시간적으로 돌이킬 수 없고 공간적으로 접근이 제약된 30년대의 북한설화를 제보자의 구술 그대로 문자화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이자 미덕으로 꼽는다. 그런 점에서 임옹이 채록한 구전설화는 민담연구의 자료적 보고일 뿐 아니라 방언연구의 드넓은 바다가 되고 있기도 하다. 가령, 1936년 12월 선천에서 채록된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설화 자체의 재미와 아울러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방언의 호흡을 접할 수 있다.

“토갱이레 새끼를 수물네마리를 나서 키우는데 이 토갱이레 새끼를 늘 헤보군 했다. 그런데 수를 헬 줄 모르느끼니 돌식 패를 마주와서



했다. 그 근체에 사는 사람이 토갱이 한마리를 채다가 먹었다. 토갱이레 새끼를 헤보구서리 패레 맞디 않으느끼니 새끼 한마리 훔었다고 울민 과됐다. 근체 사람은 다음날 또 토갱이 새끼를 잡아먹었다. 토갱이는 새끼를 헤보구 패레 맞으느끼니 토갱이는 훔었던 새끼레 돌아왔다구 도와했다.”

## 남북 통괄하는 구전설화의 집대성 기대

'북한편' 완결에 이어 임옹은 요즘 남한지역의 설화를 각도별로 정리하고 있다. '경기도편'(제5권)과 '충청도편'(제6권)의 원고가 이미 출판사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전라북도편'(제7, 8권), '전라남도· 제주도편'(제9권), '경상북도편'(제10, 11권), '경상남도편'(제12, 13권)의 순으로 정리해낼 예정이다. 이럴 경우, 도별 수집량이 들쭉날쭉한 흠은 없지 않지만, 비로소 우리는 남북한 전체를 통괄하는 한국구전설화의 집대성을 만날 수

# 좋은 편집인을 만나십시오

편집자, 기자, 레이아웃터,  
교정자, 카피라이터

노량진 전철역 맞은편

※ 취업인력 정보실 ☎ 814-3387

엘리트 편집인 양성 교육기관  
한국편집디자인센터  
☎ 812-1715-6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한국편집디자인센터는 국내 출판·편집 산업과 엘리트 편집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교육 기관으로서 전문편집인이 갖추어야 할 이론·실무 실습 위주의 교육과 출판·편집업계를 대상으로 취업추천, 출판분야 정보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번 본 센터에서는 정규반 수료생을 추천하고자 귀사에 일차 선별을 의뢰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현재 취업 구인 의뢰 급증!

※ 전공이나 경력을 고려하시면 그에 따른 소양인을 추천하겠습니다.

뉴미디어 시대를 이끌  
엘리트 편집인 양성 목표!!

본 센터의 수료생을 채용해주신  
출판사·잡지사 인사책임자에게  
감사 드립니다.

# 한 중국지식인의 통렬한 체제비판

## 方勵之自選集 「방여지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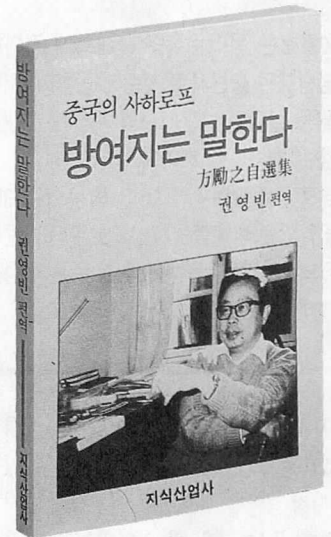
유혈진압으로 막을 내린 북경시위 당시 중국대학생들의 정신적 지주였고, 현재 북경주재 美대사관에 피신해 있으면서 신병인도를 둘러싼 美·중간의 외교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는 중국의 반체제 물리학자 방여지의 문집이 때맞춰 번역, 출간됐다.

‘중국의 사하로프’로 불리는 방여지가 1985년 이후 민주주의운동에 관해 발표한 주요언론을 수록한 이 책의 원제는 「우리가 바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 각지의 대학에서 민주주의의 사자후를 토한 강연과 토론, 그리고 내외의 언론 매체들과 가진 인터뷰 및 기고문들 중 방여지가 自選한 것을 대만에서 출판한 책이다.

모두 3부로 구성, 제1부 ‘중국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에는 현재 중국대륙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경제·문화·교육적 문제들을 날카롭게 비판한 강연과 글을 모아, 전면개방과 전면개혁을 주장하는 방여지의 급박한 호소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한다.

제2부 ‘우리가 바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는 1부에서 지적된 문제와 병폐들이 발생하고 있는 사회에서 지식인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책임을 갖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탐색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방여지는 이른바 ‘苦難中國’세대의 지식인에 거는 간절한 기대를 표명하고 있어 인상적이다.

제3부 ‘역경 속의 견지’는 중국 민주주의운동의 역경과 중첩되는 방여지의 개인사적 굴곡이 술회되고 있는데, 현실에 좌절당하지 않는 한 지식인의 오연한 기개를 느끼게



한다. 방여지의 부인 이숙한여사가 1987년 5월 북경시 인민대표로 당선됐을 당시의 연설문도 같이 덧붙였다.

부록으로는 북경대 철학과 교수인 吳國盛이 방여지의 인물됨과 사상, 물리학자로서의 경력 등을 친절하게 소개한 「중국은 이런 학자를 필요로 한다」를 실었다. 역자 권영빈 씨는 「진독수평전」 등을 번역한 바 있는 ‘중국어통’으로, 현재 중앙일보 논설위원.

지식산업사 / A5신 / 290면 / 3500원

있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그동안 우리 설화연구의 미진했던 부분들, 예컨대 동일모티브의 시간적·공간적 변용양상, 구전 스타일 및 패턴의 지역별 특수성 등에 관한 연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韓國口傳說話」의 완간에 거는 기대는 크다.

그러나, 그 스스로의 표현을 빌자면, ‘게으름과 주변없음’으로 임옹이 수십년동안 묵혀두고 있는 자료는 그것만이 아니다. 임둔희교수가 “아버님은 무얼 모아두는데는 이골이 난 분”이라고 할 만큼 설화 이외의 수집자료도 많다. 이중 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채록하기 시작한 巫歌와 민요가 대표적. 설화를 정리하는 일이 끝나면 이들 역시 책으로 묶어낼 예정인데, 특히 巫歌는 수집에서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임옹의 선구자적 연구업적이 빛을 발하는 분야이다.

### “민속은 복원 못지 않게 활용도 중요”

예컨대, 敍事巫歌의 분석을 통해 한국에는 천지개벽신화가 없다는 그때까지의 학계의 통설에 반론을 제기한 「韓國의 天地開闢神話」는 민속학연구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논문으로 평가된다. 또, 「韓國巫俗研究序說」에서 임옹은 한국의 巫俗神이 전지전능한 유일신이 아니라 인간생활의 다양한 부분부분들을 직능별로 분할, 주재하는 신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竝立神觀’이란 이름으로 밝혀내기도 했다. “각 神은 서로 간섭하지 않으며 위계질서도 없이 서로 동등한데, 이같은 神의 세계가 바로 우리민족의 특성을 나타내준다”고 임옹은 말한다.

구전설화나 무가, 민요의 채록 등에서 보듯 임옹은 민속을 복원하여 문자로 보존하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지만, 그 복원된 민속을 갖고 닦아 현대인의 감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다. 구전설화 등에 나타난 민속소재를 원용한 창작동요집 「날이 섰다」 「봄아 어서 오너라」 등을 이미 50년대에 펴냈는가 하면, 전5권의 「옛날이야기선집」 같은 전래동화집을 직접 써서 출간하기도 했다. 그런 임옹에게 우리 민속은 끝없이 정제해야 할 ‘原石’이다. 복원 못지 않게 활용도 중요하다.

“그런데, 요즘 민속을 한다는 젊은이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급하게 달아올랐던 이내 제풀에 시들해져요. 적당히 하다가 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젊은이들에게 우리 민속에 일생을 거는 장인정신이나 집요함이 부족해 보여 아쉽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임옹은 어느 ‘원로학자’들처럼 후학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원고정리를 맡기는 법이 없다. 수십년간 보관해온 자료들을 직접 일일이 원고지에 정서하고 각주를 달고 체계를 세워 분류한다. 그러나 결코 조급해 하지는 않는다. 학문이나 일상생활의 매사에 무리하거나 안달하는 법이 없는 임옹은, “이 작업이 내 생전에 끝이 날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도 ‘리듬에 따라서’ 설 때는 푹 쉰다.

그런 임옹은 요즘, 이제는 70줄에 들어선 신성중학 시절의 제자들이 집으로 찾아올 때마다 인세로 사둔 「한국구전설화」를 한권씩 나눠 주며 60년전 ‘소년 설화채록자’들의 도움을 되갚고 있다. —강철주기자

### 컬러예화집

## 돈이 보낸 편지

이의용 지음

眞實은

단 한 마디의 말로도 전달될 수 있다.  
3분이면 읽을 수 있는 짙막한 예화들.  
예쁘고 재치있는 컬러삽화.  
짧고 쉽고 맑고 깊은 메시지 72편.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현대판 명심보감.  
독자대상 : 7세 ~ 77세  
<2천8백원>

### 도서출판 대림기획

100-193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86  
275-5296 · 6295

### 이의용 에세이집

## 내 늘던 옛동산

‘고향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  
그 그리움이란  
돈을 갖고 싶어하는 것과는 다른 것.  
그렇지 않은 곳은 출생지일 뿐  
고향은 아니다.  
어머니와 고향을 가진 이는 행복하다!  
결론을 독자에게 유보하는  
참신한 수필 47편.  
<2천원>

### 도서출판 대림기획

100-193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86  
275-5296 · 6295

### 이의용 칼럼집

## 고독이라는 교만

직장과 가정을 오가며  
고달픈 경쟁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낙심하는  
고독한 직장인들에게 주는 산업칼럼.  
‘인생은 고독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고독은 독선에서 나온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는  
언제나 고독의 샘물이 고일 수밖에 없다.  
기업, 사회, 직장인에게 주는  
체험적 메시지 84편.  
<2천5백원>

### 도서출판 대림기획

100-193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86  
275-5296 · 6295